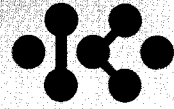


한국산업단지공단 최 종 태 호남권 본부장

“광산업 클러스터 도약
적극 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PHOTONICS PEOPLE

“광역권 클러스터 관련 유관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광산업 등 호남권의 특화 산업들이 산업간 연계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광역별 연계 및 융합화를 촉진하는 광역권 연계사업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최중태(48)신임 호남권본부장은 “대학·연구소 등과의 지원협력체제를 마련해 광산업체와의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며 혁신역량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호남권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산업단이 조성돼 있는 만큼 서로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광산업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의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내 산업단지 구석구석을 찾고 있다. 단순히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것보다는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조성되는 산업단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최 본부장은 “오늘날 산업단지 관리의 과거의 규제와 행정 중심에서 탈피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과 지원기능 확대라는 포괄적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며 “산단공도 기존의 획일적이고 규제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에서 입주기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수요자(입주기업) 중심의 산업단지 관리제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또 “호남권은 여수 석유화학, 대불산단 조선, 광주 광산업, 군산 자동차로 클러스터별로 각각 특화돼 있다”며 “이들 산업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이어 “‘광산업 메카’인 광주시가 체계적인 광산업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방식을 전환할 것”이라며 “첨단그린산업 등과 연계해 모든 업무를 기업성과 지원에 초점을 맞춰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에 맞춰 기존의 관리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신규 전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기업지원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창업 희망 기업들에게 공장부지는 물론 환경영향평가, 측량, 건축허가 등 모든 행정적 처리를 무료로 지원하는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가 이뤄지다보니 혁신역량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제조업 중심의 입주환경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지원시설 확충과 산업단지에 문화·복지·학습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신임 최 본부장은 강원도 강릉 출생으로 경희대와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을 졸업, 1990년 공단 입사 후 본사 조사협력부장과 기획부장, 총무부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